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한국거래소의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OSPI200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주식현물 포트폴리오와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합니다.

주식현물 바스켓: KOSPI200지수와와 추적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0~150개 내외의 주식으로 바스켓 구성

KOSPI200지수선물 매매: KOSPI200지수와 KOSPI200지수선물과의 차이인 베이스를 모니터링 하여 주식현물바스켓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우 투자 실시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167억 원

-모투자신탁 1,160억 원

펀드유형

- 주식형, 모자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F : 2008년 12월 08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4년 05월 02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벤치마크

KOSPI200 100%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수탁)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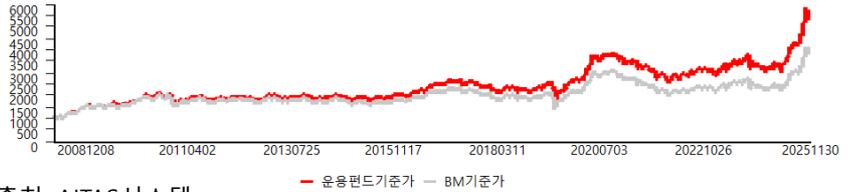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4.14%	29.25%	55.05%	74.87%	73.27%	87.42%	85.07%	441.49%
클래스 A-E	-4.18%	29.13%	54.78%	74.23%	71.97%	85.31%	81.60%	167.66%
클래스 C-F	-4.17%	29.17%	54.85%	74.41%	72.34%	85.91%	82.58%	417.14%
클래스 C-P2(연금저축)	-4.19%	29.06%	54.61%	73.86%	71.19%	84.06%	79.55%	168.44%
클래스 S	-4.17%	29.14%	54.78%	74.25%	72.00%	85.36%	81.68%	169.59%
벤치마크	-4.39%	28.80%	54.05%	70.23%	63.70%	72.59%	60.09%	282.3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1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1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4.1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1.7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5.2	신한지주	금융	1.7
KODEX 200	기타	3.7	NAVER	IT 서비스	1.6
KB금융	금융	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1.5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1.8	셀트리온	제약	1.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E : 총 연 0.3825% (판매 0.15%)
 - 클래스 C-F : 총 연 0.2725% (판매 0.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0.6125% (판매 0.38%)
 - 클래스 S : 총 연 0.3725% (판매 0.14%)
- (공통사항)
운용 0.2%,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25% 이내
- 클래스 C-F, C-P2(연금저축), S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1월 국내 증시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KOSPI는 전월 대비 4.4% 하락한 3,926.59pt로 마감한 반면, KOSDAQ은 1.36% 상승한 912.67pt를 기록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 섀다운 리스크와 이에 따른 단기 유동성 경색 우려, 연준(Fed)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으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다만 월 중반 이후, 국내 반도체 업종의 2026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과 미국 빅테크의 견조한 실적, AI 생태계에 대한 낙관론 재점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에 힘입어 지수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연초 이후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조선, 기계 업종이 조정을 받았고, 섬유·의복, 은행, 철강, 음식료, 자동차부품 등 경기방어/가치주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이며 1,464.8원에 마감하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배럴당 58.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약 14.1조 원을 대거 순매도,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각각 약 6.3조 원, 8.8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2월 국내 주식시장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과 2026년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첫째, AI 섹터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최근 제기된 AI 과잉 투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기조는 견고합니다. 이는 국가 및 기업 간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 AI 생태계 핵심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 모멘텀이 하방을 지지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 그리고 2026년 조성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유동성 공급 기대감은 국내 증시의 수급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며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고, 연준(Fed)의 통화정책이 점차 완화적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기업 이익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기업의 이익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판단하여 이익모멘텀, 낙폭과대, 절대 저평가 팩터 중심의 접근 예정입니다. 낙폭과대 그로스 종목에 대해서는 trading 대응할 예정입니다. 매크로 변수 예측(환율, 유가, 금리)을 통한 선제적 trading 전략도 지속 수행 예정이고 실적 상향 종목에 대한 선제적 포지션 구축도 지속 예정입니다. 락업 해제, 기업분할, 유상증자 등 증가하는 기업 이벤트에 대해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BM복제율은 당분간 높게 유지할 계획이고, 차익거래와 지수편입, IPO 참여, 기업 이벤트 트레이딩 또한 지속적으로 구사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